

李商隱 詩 제목의 심미적 특징 연구^{*}

金俊淵^{**} · 黃智宣^{***}

<목 차>

1. 서언
2. 본론
 - 2.1 제목의 기능과 유형
 - 2.2 李商隱 詩 제목의 유형별 분류
3. 결론

1. 서언

《詩經》이나 《論語》와 같은 先秦 시기 문헌에는 본래 篇名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關雎>나 <學而>라 부르는 이름은 후대에 문헌을 편찬한 사람들이 붙인 것일 따름이다. 게다가 편찬자가 원작자를 대신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만한 어휘를 고심 끝에 선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첫머리의 두세 글자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이런 편명은 분류 기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屈原이 자신의 楚辭 작품에 <離騷>라는 제목을 붙인 이후로 대다수의 문학작품은 작자에 의한 제목을 가지게 되었다. '離騷'의 의미에 대해서 술한 이설이 있기는 하나, 班固의 설명을 따르면

* 이 연구성과는 2013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장학금 수혜의 결과물로 작성된 것임.

** 高麗大 中文科 教授.

*** 高麗大 中文科 講師.

‘근심을 만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¹⁾ 이에 의거하면 굴원이 373구에 이르는 장편의 <이소>에서 써내려간 많은 구절들도 독자들이 ‘근심을 만나다’란 뜻의 제목인 ‘離騷’를 버리로 삼아 主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 따라서 이처럼 작자 자신이 취한 제목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자의 창작 의도가 담긴 작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들이 애써 나름의 의도를 담은 제목이 여전히 <關鳴> 류의 ‘분류 기호’로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고전시 번역어나 연구에서 제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杜甫의 시를 가장 먼저 우리말로 옮긴 《杜詩諺解》만 하더라도 제목은 따로 풀이하지 않았다.³⁾ 근래에 제목까지 번역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었다고는 하나, 제목에 담긴 시인의 의도나 그것의 미학적 효과를 논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두보가 ‘國破山河在’로 시작되는 자신의 오언율시에 <春望>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며, 독자가 <恨別>과 같은 다른 어떤 제목이 아니라 <春望>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이 시를 읽을 때 얻게 되는 美感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에 아직 둔감한 상태라는 뜻이다. 시어 하나도 정성스레 빚어냈던 시인들이 제목만 허투루 넘겼을 리 없다고 보면, 시의 내용뿐 아니라 제목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검토할 대상으로 李商隱의 시를 선택했다. 이는 비단 그가 ‘無題’라는 독특한 형식의 제목으로 유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600수에 달하는 그의 시를 일별하면 각종 다양한 특징을 가진 제목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제목의 短小化라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되는가

1) 班固, <離騷贊序>: “離, 猶遭也, 騷, 憂也, 明己遭憂作辭也.”

2) 이에 대해서는 龐塏가 《詩義固說》 卷上에서 “후인들이 시를 읽을 때 비록 세대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으로부터 시의 뜻으로 거슬러올라가 모두 그가 느낀 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가 제목에 맞춰 나아가기 때문이다.(後人讀之, 雖世代懸隔, 以意逆志, 皆可知其所感, 詩依題行故也.)”라고 했던 말이 좋은 참고가 된다.

3) 구본현, <제목을 통한 한시 해석의 중요성과 그 이유>, 《한국문학논총》제48집, 2008, 64쪽.

하면 長題와 詩序 등 中唐 이후에 유행했던 흐름도 심분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상은의 시에서는 진부한 제목을 답습하기보다 제목이 담아낼 수 있는 영역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것을 시의 내용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 노력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이상은 시 제목의 심미적 특징을 밝혀보려고 한다.

2. 본론

2.1 제목의 기능과 유형

中國古典詩史에서 제목을 붙이는 기풍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魏晉 시대였다.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문인의 창작 주체로서의 自覺이다. 위진의 문인들은 孔子 이래로 글쓰기의 이념이 되었던 ‘述而不作’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창작’으로 나아갔다. 문인의 글쓰기가 공적인 관념의 제약을 받는 몰개성적인 재생(playback)이 아니라 작자의 정체성과 사적인 감정이 녹아든 창작(work)이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개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자 ‘이름’을 요구하게 된다. 그것이 시 작품에서는 제목으로 나타난다.⁵⁾ 둘째는 賦의 영향이다. 漢代에 융성한 부는 위진 시대에도 맹위를 떨쳐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司馬相如의 <上林賦>나 班固의 <兩都賦>처럼 부는 기본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특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4) 喬億은 《劔溪說詩》卷下에서 “시제는 이상은에 이르러 별도로 아름다운 정경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당인의 가법이 이로써 조금 변하게 되었다.(詩題至于玉局, 別構佳境, 唐人家法, 爲稍變矣.)”고 하였다.

5) 신은경은 제목이 “어떤 작품에 대하여 작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최초의 그리고 1차적인 문학적 표지”라고 했다.(〈漢詩의 長形標題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4집, 2010, 258쪽)

일련의 정보를 나열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시도 부의 영향을 받아 《시경》의 시와는 달리 표출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감정에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⁶⁾

당대의 시인들은 위진 이후 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한 제목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런 까닭에 남송의 嚴羽는 제목만 보아도 그것이 唐詩인지 宋詩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당시의 제목은 언어부터 다르다는 것이다.⁷⁾ 이는 얼마간 과장이 섞인 표현이라 하겠으나, 당대 시인들이 前代에 비해 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을 구상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상은 시의 제목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탐색하기에 앞서 제목의 일반적인 기능과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제목의 어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 한자로 ‘題目’은 ‘이마와 눈’을 뜻한다. 이마와 눈은 우리가 사람의 신체부위 가운데 가장 먼저 관찰하는 부분이다. 영어로 제목을 뜻하는 ‘Title’의 어원은 ‘Titulus’이다. 이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바깥쪽에 붙여놓은 ‘꼬리표’를 가리킨다.⁸⁾ 이를 종합해보건대 시의 제목은 일종의 식별 기호이면서 시의 내용을 대표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마와 눈’이 없는 사람이나 ‘꼬리표’가 없는 두루마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시를 접할 때 제목과 내용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사키 겐이치는 제목이 작품과 맺는 기호로서의 의미를 논한 바 있다. 그는 제목을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예술 작품에 부여되고 통합된 메타 텍스트”라고 정의했다. 제목은 작품에 부여된 작가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라는 일종의 ‘인지 명령’이며, 이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갖는 독점적 권리라는 것이다.⁹⁾ 독자의 자유로운 감상을 저해할 수 있는 ‘명령’

6) 吳承學, <論古詩制題制序史>, 《文學遺產》 1996年 第5期, 11쪽.

7) 嚴羽, 《滄浪詩話·詩評》: “唐人命題, 言語亦自不同. 雜古人之集而觀之, 不必見詩, 望其題引而知其爲唐人今人矣.”(당인이 붙인 제목은 언어가 각기 다르다. 고인의 시집을 섞어놓고 볼 때면 시를 볼 것도 없이 제목만 보아도 그것이 당인의 것인지 송인의 것인지 알게 된다.)

8) John Mulvihill, “For public consumption: The origin of titling the short poem”,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Apr 1998, p.191

9) 사사키 겐이치, 최은희 역, <예술 작품 표제의 기호학: 두 텍스트의 상호 관계>, 《기호학 연구》 제3집, 1997, 337-341쪽.

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목을 일종의 메타 텍스트로 받아들일 여지는 충분하다. 제목은 시인 스스로 발신자가 되어 시의 내용에 대해서 수신자에게 발화한 전언(message)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독자는 제목이라는 전언에 담긴 약호(code)를 정확하게 해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작자가 '빈출 질문'¹⁰⁾에 답변을 미리 준비한 것에 제목을 비유한 페리(Anne Ferry)의 견해도 작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사사키와 일맥 상통한다. 그는 제목이 시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무언가를 미리 말해둔 것이라고 보았다.¹¹⁾ 이런 관점에서 朱慶餘의 시 한 수를 살펴보자.

洞房昨夜停紅燭,	침실엔 어젯밤 붉은 촛불을 켜두었고
待曉堂前拜舅姑。	날이 밝아 방 앞에서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려 합니다.
妝罷低聲問夫婿，	화장을 마치고 낮은 소리로 서방님께 물었지요
畫眉深淺入時無。	“눈썹을 그린 색조가 유행에 맞아 보이나요?”

이 시를 읽고 나면 다른 부가정보 없이도 새색시로 설정된 화자가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 전에 남편에게 화장이 적절한지 묻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새색시-시부모-남편'의 비유 구조가 의도한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자인 주경여는 이 시를 읽은 독자들이 주로 '무슨 일로 누구에게 쓴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을 앞두고 수부낭중 장적에게 올린다(近試上張籍水部)>라는 답변을 미리 내놓았다. 즉 이 시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인 주경여(새색시)가 시험관(시부모)에게 올릴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력자(남편)인 장적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썼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독이 용이한 제목의 약호 덕분에 작자의 전언이 쉽게 이해되고, 시에 대한 궁금증도 대부분 해소된다. 그러나 만약 시인이 《시경》의 방식대로 시의 첫머리에서 두 글자를

10) 흔히 영어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라 표현한다.

11) Anne Ferry, *The Title to the Poe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2

따 <침실(洞房)>이라고 제목을 달았다면, 독자는 전혀 다른 해석을 시도해야 했을 지도 모른다.

제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姜聲尉는 그 기준으로 '창작의 계기', '吟詠의 대상', '시가의 체제', '詩作的 방식' 등을 제시한 바 있다.¹²⁾ 본고에서는 이보다 '詩題의 長短', 즉 제목의 길고 짧음에 주목하려고 한다. 청대 시인 陳僅이 당시의 제목은 간략한 것과 상세한 것 모두 意趣가 있다고 했거나¹³⁾ 제목의 길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시인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여 빈출 질문에 대해 준비한 답변의 분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시의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메타 텍스트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시의 제목은 短題, 中題, 長題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임의적인 분류이나 얼마간의 근거를 마련해보면 이렇다. 첫째는 제목의 正格에 대한 개념이다. 王輝斌은 제목의 정격으로 'V+N'의 통사구조를 제시했다.¹⁴⁾ 이때 'N'은 범칭(generic term)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두보 시의 '登(V)+岳陽樓(N)'가 여기에 해당한다.¹⁵⁾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정격은 대략 네 글자 이상이 될 것이므로 이보다 적다면 단제로 분류된다. 둘째는 제목을 읽을 때의 호흡이다. 劉宏民은 중국인이 한 호흡으로 읽기에 적당한 글자 수가 10자 가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11자 이상은 長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목의 글자 수를 기준으로 1~3자는 短題, 4~10자는 中題, 11자 이상은 長題에 해당한다. 이를 《全唐詩》와 당대 주요 시인의 시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姜聲尉, <詩題論>, 《中國文學》제48집, 102-104쪽.

13) 陳僅, 《竹林問答》: “試觀唐人詩題, 有極簡者, 有極委曲繁重者, 熟思之皆有意義, 置之後人集中, 可以一望而知.”

14) 王輝斌, <別具匠心: 唐詩的制題藝術>, 《山東師大學報》1994年 第5期, 80쪽.

15) 두보 시의 제목에는 <登樓>와 <春日梓州登樓>도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樓'는 일반적인 누각이지만 후자의 '樓'는 '梓州'의 수식을 받아 훨씬 구체화된다. 이런 경우에서 유추해 보건대 'N'을 특정하는 데 두 글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16) 劉宏民, 《唐詩題序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15쪽.

분류	시인	詩題 數	短題		中題		長題	
中題型	全唐詩	42420	12221	28.8	24984	60.0	5215	12.2
	王維	321	74	23.1	195	60.7	52	16.2
	李白	763	178	23.3	556	72.9	29	3.8
短題型	杜甫	1136	488	43.0	466	41.0	182	16.0
	李賀	186	109	58.6	73	39.2	4	2.2
	李商隱	540	300	55.6	174	32.2	66	12.2
長題型	劉禹錫	677	117	17.3	287	42.4	273	40.3

《전당시》에 수록된 시의 제목¹⁷⁾을 대상으로 그것의 장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제 : 중제 : 장제의 비율이 대략 3 : 6 : 1로 나타난다. 전수를 조사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평균으로 삼아 개별 시인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제의 폭이 4~10자로 넓다고 하여 모든 시인이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두보는 단제가 가장 많고, 유우석은 장제의 수량이 중제에 버금간다. 본고에서 주로 논의하려고 하는 이상은 '단제형'에 속하면서 장제도 평균에 가까워 두보와 가장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상은이 제목에서 메타 텍스트의 양을 줄이는 '감추기'와 양을 늘이는 '드러내기'의 전략을 고루 취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 같은 '단제형'의 시인인 두보와 이하의 제목을 훑내내는 '따라하기'와 이상은의 독창적인 면모를 담은 '낯설게하기'의 수법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www.kci.go.kr

17) 詩題의 수이므로 연작시는 하나의 시제로 계산된다.

2.2 李商隱 시 제목의 유형별 분류

2.2.1 감추기

‘감추기’ 유형은 이상은이 제목에서 시의 내용에 대한 정보의 양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을 가리킨다. 제목의 길이로 보면 1~3자 사이인 短題가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 또 물리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보가 없는 ‘無題’와 ‘無題類’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¹⁸⁾ 그러나 모든 단제에서 제목의 글자수에 비례해 정보가 감소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몇 글자의 짧은 제목으로도 시의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는 시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 제목은 종종 그 내용을 유추하거나 배경을 살피는 좌표로 활용된다. 그래서 시를 읽는 독자에게 제목은 이른바 ‘앵커링 효과’¹⁹⁾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제와 무제(류)의 시에서는 전달되는 사전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독자가 앵커링할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제목이 시의 독법이나 해석의 방향을 지시하는 힘도 약해진다. 최소한의 사전 정보에 의지해 시를 감상할 때, 독자는 자신의 체험이나 즉흥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사전에 시인이 내린 ‘인지 명령’이 거의 없는 까닭에 독자는 구체적인 시의 내용을 재구성하기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시인이 전달하려는 감정에 집중하게 되는데, 필자는 바로 여기에 감추기 유형의 미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錦瑟(비단 비파)> 시를 예로 들어 그 효과를 살펴보자.

18) 시제를 ‘제목이 없다’는 뜻의 ‘無題’라고 지은 ‘無題’시와 시편의 몇 글자를 취해 시제로 삼은 ‘無題類’시는 이상은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류의 제목이다. 이상은이 이와 같이 시의 제목을 지은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다른 지면에서 논하는 것이 좋겠다. 본고에서는 담아낼 수 있는 메타 텍스트의 물리적 양을 기준으로 ‘무제’시와 ‘무제류’시를 본 항에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19) 앵커링(anchoring)은 배가 항구에 닿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심리학 또는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얻은 정보나 가치를 활용해서 사고를 전개하고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닷 내리기 효과라고도 한다.

錦瑟無端五十弦，
一弦一柱思華年。
莊生曉夢迷蝴蝶，
望帝春心托杜鵑。
滄海月明珠有淚，
藍田日暖玉生煙。
此情可待成追憶，
只是當時已惘然。

비단 비파는 까닭 없이 오십 줄로 되어 있어
한 줄 한 기러기발마다 꽃다운 시절 생각하게 하네.
장주는 새벽 꿈에 나비인가 헤맸고
망제는 봄 마음을 두견새에 기탁했다네.
창해에 달 밝으면 진주에는 눈물이 있고
남전에 해 따뜻하면 옥에서 연기가 난다네.
이러한 마음을 어찌 추억 되기까지 기다리랴
그저 당시에 이미 망연자실했던 것을.

이 시는 첫 구절의 두 글자를 제목으로 삼은 일종의 무제시이다. 제목인 ‘비단 비파’를 비롯하여 首聯에서 尾聯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내용에 대한 歷代의 해석이 매우 분분하다.²⁰⁾ 이는 모든 구절이 은유적으로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먼저 제목에서 ‘비단’과 ‘비파’의 이미지를 희미하게 떠올리게 된다. 이어서 ‘생각하다(思)’, ‘헤매다(迷)’, ‘눈물(淚)’, ‘추억(追憶)’, ‘망연자실(惘然)’ 등 문장의 주축을 이루는 시어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꽃다운 시절(華年)’, ‘나비(胡蝶)’, ‘봄 마음(春心)’과 같은 시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시를 읽어나갈 것이다. 만약 이 시의 제목이 張祐의 <聽岳州徐員外彈琴(악주 서원외의 금 연주를 듣고)>처럼 얼마간의 정보를 더 제공했다면, 독자는 서원외의 생평이나 시인과 서원외의 교우관계 등에 앵커링되어 ‘사실 또는 사건’에 집중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상은은 ‘비단 비파’라는 ‘감추기’ 유형의 제목으로 특정의 ‘사실 또는 사건’의 개입을 적극 차단하면서 독자들이 ‘아련한 추억과 슬픔’이라는 정서를 더 잘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독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인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정서를 구체화시키며, ‘빈 칸 채우기’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의 의미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20) 朱鶴齡, 厲鶚, 朱彝尊, 程夢星, 馮浩 등은 사별한 아내 王氏를 기리며 지은 悼亡詩라 해석하였고, 胡震亨, 紀昀, 簡翠貞 등은 시인의 불우한 일생에 대해 읊은 것이라 해석했다. 또한 何焯, 張榮田, 劉學鐸·余恕誠 등은 시인의 정치적 고민을 담은 것이라 해석했다. 이 밖에도 단순한 詠物詩라 해석하는 경우와 심지어는 傷國詩라는 견해도 보인다. 劉學鐸·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中華書局, 2004, 1581-1601쪽.

이러한 경향은 제목을 ‘無題(제목 없음)’라고 한 시에서 더 심화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相見時難別亦難.	만날 때도 어려웠지만 헤어지기도 어려웠
東風無力百花殘.	동풍이 힘 없으니 온갖 꽃이 시든다.
春蠶到死絲方盡.	봄 누에는 죽어서야 실 뽑기를 그만두고
臘炬成灰淚始乾.	촛불은 재가 되어서야 눈물이 마른다.
曉鏡但愁雲鬢改.	새벽에 거울 보며 구름 같은 머리채 바뀔을 근심하겠고
夜吟應覺月光寒.	밤에 읊조리며 달빛의 차가움을 느끼겠지.
蓬山此去無多路.	봉산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靑鳥殷勤爲探看.	파랑새야 살짝 살펴봐주렴.

이 시는 제목 자체를 ‘제목 없음’이라고 지은 까닭에 시인이 제시하는 이해의 방향이 전혀 없다. 어쩔 수 없이 독자는 시의 제목을 ‘물음표’로 남겨둔 채 시를 읽게 된다. 제1구의 ‘만남(相見)’과 ‘헤어짐(別)’, 그리고 ‘어렵다(難)’라는 시어를 중심축으로 삼아 시의 주된 정서를 파악하며 시를 읽어나갈 것이다. 이어서 ‘온갖 꽃(百花)’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할 ‘동풍(東風)’이 ‘힘이 없다(無力)’라는 내용을 인지하면서 이 시의 배경을 두고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된 서사를 토대로 독자는 ‘물음표’로 남겨 두었던 부분을 ‘자신만의 제목’으로 채워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독자 스스로가 이 시를 읽으며 느꼈던 가장 강렬한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를 읽으며 끊임없이 시의 주축을 이루는 시어와 정서를 파악하느라 애썼기 때문이다. 이상은이 시의 제목을 아예 감추어버린,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인해 독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에 개입하여 자신의 감상이 반영된 제목을 찾으려 하는 힘이 이상은 무제시의 큰 매력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상은의 무제(류) 시를 대하는 이러한 독법이 사실상 ‘최초의 독자’에게 국한되고 말았다는 아쉬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역대로 무제시에 대한 감상과 평론이 무수히 이어지면서 ‘2차 메타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은의 무제(류) 시가 2차 자

료에 의해 '최대한의 사전 정보'를 가진 작품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론 시인이 애초에 의도한 바는 아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상은의 무제(류) 시를 읽는 독자는 으레 그것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연애담을 노래한 시'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다.²¹⁾ '무제'라는 제목이 특정의 의미장(semantic field)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매우 강력한 앵커링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은이 무제(류) 시에서 시도한 '감추기'의 대상이 반드시 '비밀스런 애정'이라고 예단하지 않는 태도가 이런 유형의 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다음의 <夢澤> 시를 분석하면서 이상은이 '감추기'라는 수법을 통해 얻으려고 한 효과를 더 살펴 보자.

夢澤悲風動白茅,	몽택의 슬픈 바람 흰 띠풀을 흔드는데
楚王葬盡滿城嬌。	초왕이 온 성의 미녀들을 모두 장사지내게 했지.
未知歌舞能多少,	가무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지 알지도 못하면서
虛減宮廚爲細腰。	쓸데없이 궁궐의 음식을 줄여 가는 허리 만들었구나.

이 시는 시인이 대중 원년(847) 桂州로 가는 길에 동정호 일대를 지나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흰 띠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몽택 주변 경치에 감정이 촉발되어 인생에 대한 감개를 읊었다. 허리가 가는 여인을 좋아했던 초왕의 취향 때문에 많은 궁녀들이 굶어죽었다는 고사를 인용해 위정자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한편,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목숨도 잃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고사는 본래 초나라 靈王의 細腰宮을 다룬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반영한 제목, 이를테면 <過楚靈王細腰宮有感(초나라 영왕의 세요궁을 찾아간 감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은 첫 구절의 두 글자인 '夢澤'을 따와 무제(류)의 제목을 취하면서 '감추기'를 시도했다. 이 '夢澤'을 한 글자씩

21) 이상은의 무제(류) 시를 다룬 연구 대부분은 이들을 애정시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南宋의 陸游는 《老學庵筆記》에서 무제(류) 시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는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에 '무제'라는 제목이 붙는다고 여겼다. 무제를 언급한 다른 기록들 역시 비슷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박민정, <西崑派와 李商隱의 無題詩에 관한 小考>, 《中國語文論叢》 제42집, 2009, 144-145쪽.)

살펴보면 ‘夢’은 꿈, ‘澤’은 恩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인이 제목의 정보를 제한한 이유는 한낱 ‘왕과 여인’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아달라는 뜻이 아닐까? 청나라 朱彝尊은 “이 시의 제목을 ‘楚宮’이라 하지 않고 ‘夢澤’이라고 한 것은 ‘借用’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²²⁾라 평한 바 있다. ‘초나라 왕’이나 ‘궁녀’에 매몰되지 말고, ‘은택을 꿈꾸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치명적 위험이라는 더 큰 명제를 간파하라는 것이 차용의 의도라 판단된다.

2.2.2 드러내기

시인이 제목을 통해 ‘드러내기’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감추기와 반대로 메타 텍스트의 양을 늘렸다는 뜻이다. 시인이 드러내려고 하는 대상은 작시의 배경과 참고사항, 시의 소재나 體式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유형에는 中·長題, ‘賦得體’, 서문이 있는 시 등이 포함된다. 드러내기 유형에 속하는 제목은 과거 시험에서 비롯된 ‘點題’의 전통이 얼마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옛 시인들은 제목에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名副其實’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목에서 모두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 이상은도 이런 원칙에서 완전히 비껴 서 있던 것은 아니었다.

먼저 이상은의 <病中早訪招國李十將軍遇挈家遊曲江(병중에도 가솔을 거느리고 曲江을 노니는 招國의 李十 將軍을 미리 찾아뵈다)> 시를 보자. 이 시는 16자로 이루어진 문장 형식의 장제에 시의 내용을 압축해 놓았다. 시의 본문은 두 편의 연작시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각 구절에 제목에 담은 의미 요소들이 고루 분산되어 있다. 본문을 살펴보자.

十頃平波溢岸清,
病來唯夢此中行。
相如未是真消渴,
猶放沱江過錦城。

천 이랑 잔잔한 물결 강 언덕에 넘실대며 맑으니
병중에도 이곳에 노니는 꿈을 꾸었다.
사마상여는 진실로 소갈증을 앓던 것이 아니었으리라
여태껏 타강이 금성을 흐르도록 내버려둔 것을 보면.

22) “題不曰楚宮，而曰夢澤，亦借用也。” 劉學鍇·余恕誠，앞의 책，673쪽.

(又一首)

家近紅葉曲水濱,	장군의 집은 붉은 연꽃 핀 곡수 물가와 가까워
全家羅襪起秋塵。	온 집안 여인의 비단 버선에 가을 먼지이네.
莫將越客千絲網,	월나라 객의 천 가닥 실로 짠 그물로
網得西施別贈人。	서시를 낚아 다른 이에게 바치지 말지니.

이 시는 求婚하는 남성과 중매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²³⁾ 즉 가솔을 거느리고 곡강을 유람하는 ‘이십 장군’이 그 가솔 중 한 명을 시적 화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중매자라는 것이다. 이상은은 후편의 마지막 구절과 더불어 ‘드러내기’ 유형의 제목을 통해 구혼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의미의 근간을 이루는 ‘V+N’의 형태로 이 시의 긴 제목을 추린다면 <訪李十將軍(이십 장군을 방문하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은 단순하게 방문 대상자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병중에도’, ‘곡강에서’, ‘미리’, ‘가솔을 거느린’ 등의 자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구혼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절박함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시적 화자의 마음이 불특정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점찍어 둔 상대를 겨냥하고 있음도 눈치챌 수 있다.

이 시는 이렇게 제목을 통해 절실한 감정을 담은 ‘구애의 노래’로 이 시를 이해해달라는 근거를 시인이 충분히 제공했다. 그것은 시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제목만큼 시의 내용까지 그렇게 직설적일 수는 없다. 얼마간의 비유와 상징이 없는 시는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용은 비유와 상징으로 일관하며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에두른다. 독자의 입장에서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는 제목과 에두르는 내용을 오가면서 시인이 설정한 교묘한 연결고리와 말 주변에서 심미적 쾌감을 찾게 된다.

드러내기 유형에 속하는 시에는 때로 시인의 ‘과시욕’이 개입되기도 한다.

23) 劉學鐸·余恕誠, 위의 책, 224쪽: “義山之婚, 似藉其力.”, 228쪽: “而急求作合之解殆非妄測. 詳味詩題及二詩, 似李十有意於戚屬女子中爲義山作合.”

제목이 시인의 '點題' 능력, 즉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을 구성해내는 능력의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 과거시험의 양식인 '試帖詩'는 주어지는 시제에 맞게 五言排律 한 편을 짓는 것이었으므로, 이런 능력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했다. 이런 시에서는 제목이 전달하는 정보가 내용의 전부를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은의 <人日卽事(정월 초이레에 즉흥적으로 지음)> 시를 예로 든다.

文王喻復今朝是,	문왕이 되돌아 올 것을 깨우쳐준 것이 오늘이었고
子晉吹笙此日同.	왕자교가 생황을 분 것도 이 날과 같았다.
舜稼有苗旬太遠,	순임금이 묘족을 감화시킴에 열흘도 너무 모자랐고
周稱流火月難窮.	주나라에서는 화성이 기움에 한 달로도 다하기 어렵다 했네.
鏤金作勝傳荊俗,	금박 새겨 머리장식 만든 것은 형 땅의 풍속을 전한 것이고
翦綵爲人起晉風.	비단 오려 사람 만든 것은 진 땅 풍속에서 시작된 것이네.
獨想道衡詩思苦,	홀로 떠올리는 것은 설도형이 시에서 그리움에 사무쳐
離家恨得二年中.	집 떠난 지 이 년 만에 한을 얻었던 것일세.

이 시는 음력正月 초이레인 人日과 관련한 여러 전고를 나열한 뒤 마지막에 시인의 심정을 기탁한 것이다. 매 구절이 모두 제목의 '초이레'와 관련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수련은 《周易》에 등장하는 '復'괘에 대한 풀이²⁴⁾와 왕자교와 관련된 고사²⁵⁾에서 '초이레'를 드러냈다. 이어지는 함련과 경련 역시 모두 '초이레'와 관련이 있는 전고가 쓰였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 시는 이상은이 '인일'을 맞이하여 '인일'에 관련된 전고를 나열하여 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왕과 왕자교, 묘족과 화성, 형 땅과 진 땅의 풍습을 다룬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시는 '가슴'보다는 '머리'로 다가가야 한다. 서로

24) 《易·復》：“反復其道，七日來復，天行也。”

25) 劉向《列仙傳·王子喬》：“王子喬者，周靈王太子晉也。好吹笙，作鳳凰鳴。遊伊洛之間，道士浮邱公接以上嵩高山。三十餘年後，求之於山上，見桓良曰：‘告我家：七月七日待我於緱氏山巔。’至時果乘白鶴駐山頭，望之不得到，舉手謝時人，數日而去。”

다른 내용의 각 구절에서 제목에서 제시한 ‘초이레’를 찾는 일종의 두뇌게임이다. 역사 지식이 풍부한 독자라면 시인이 만든 퍼즐을 하나씩 맞추면서 일사분란한 정제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전고를 나열하고 제목이 그 내용을 다 드러내는 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청나라 屈復은 “이 시는 수달이 제사지내는 듯한 작품 중 최하의 수준이다(此首乃癩祭之最下者)”라고 혹평하기도 했던 것이다.²⁶⁾

그러나 드러내기 유형의 시들이 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타 텍스트의 양을 늘려 작시 의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점을 지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²⁷⁾ <回中牡丹爲雨所敗二首(회중의 모란이 비를 맞아 떨어지다)>의 둘째 수를 살펴보자.

浪笑榴花不及春,	공연히 석류꽃이 봄에도 피지 못함을 비웃다가
先期零落更愁人。	먼저 떨어지니 더욱 근심을 자아내네.
玉盤迸淚傷心數,	옥쟁반에 솟구치는 눈물에 마음 아프길 수차례
錦瑟驚絃破夢頻。	비단 비파의 깜짝 놀랄 현 소리에 꿈에서 깨길 여러 번.
萬里重陰非舊圃,	만 리에 구름만 가득하니 옛 남새밭이 아니고
一年生意屬流塵。	일 년의 생기가 날리는 흙먼지가 되고 말았네.
前溪舞罷君迴顧,	전계에 춤이 끝난 후에 그대 돌아보시라
併覺今朝粉態新。	오늘 아침의 자태가 신선하다 느껴지기까지 할 터이니.

이 시는 개성 3년(838) 봄 涇原節度使 막부에서 지은 것이다. 시인은 1-2구에서 모란이 석류꽃보다 먼저 피었다고 우쭐대다가 난데없이 비를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근심을 자아내기에 족하다고 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비를 맞아 떨어지는 모란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 시의 제목을 ‘회중의 모란이 비를 맞아 떨어지다’라고 한 데서 독자는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모란에 투영한 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과거에 급제해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박학평사과에 떨어진 채 涇州에 와 있는 상황이 비에 떨어진 모란을 연상시킨다는

26) 劉學鐸, <李商隱的七言律詩>, 《安徽師範大學學報》第30卷 第1期, 2002, 58쪽.

27) 신은경, 앞의 글, 265-266쪽.

것이다. 시인은 이 시의 주된 소재인 ‘모란’뿐 아니라 王茂元의 경원절도사 막부가 있던 지역인 ‘회중’, 모란을 시들게 하는 주요 원인인 ‘비’, 모란이 비를 맞은 결과를 나타내는 ‘떨어지다’까지 모두 제목에 반영하였다. 이는 시인이 ‘모란’뿐 아니라 나머지 요소에도 똑같은 비중을 두었다는 말이다.²⁸⁾ 만약 이 시의 제목을 <모란> 또는 <무제>라 했다면, 박학평사과에 떨어진 이상은의 처지가 투영되었다는 해석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제목을 이용해 메타 텍스트의 양을 늘임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시를 이해하는 방향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 따라하기

이상은 시의 제목에는 두보, 이하를 비롯하여 左思, 徐陵, 岑參, 韓偓 등 다른 시인의 제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제법 많다. 또한 특정 시인의 풍격을 모방한 사실을 제목에 밝힌 것도 다수 발견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를 모아 ‘따라하기’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상은이 두보와 이하 시의 제목을 따라했다는 사실이다.

이상은이 두보를 본떴음을 제목에 밝힌 시로 <杜工部蜀中離席>과 <河清與趙氏昆季讌集得擬杜工部>가 있다. 그리고 두보와 이상은 시의 제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漫成(三首)>, <可嘆>, <江上>, <九成宮>, <九日>, <歸來>, <晚晴>, <城上>, <搖落>, <雨>, <寓目>, <月>, <有感>, <幽人>, <早起> 등 열 수를 상회한다. 특히 <漫成>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는 두보와 이상은 외에 다른 사례가 전혀 없다. 두보 시의 제목과 유사한 것으로는 <江村題壁>(李商隱)—<江村>(杜甫), <曲江>—<曲江對雨>, <樂遊原>—<樂遊原歌>, <武侯廟古柏>—<武侯廟-古栢行>, <小園獨酌>—<小園> 등이 있다. 이하를 본뜬 것을 밝힌 것으로는 <效長吉>이 있

28) 葛兆光, 《晚唐風韻》, 中華書局, 2004, 131쪽.

다. 그리고 이하 시의 제목과 유사한 것으로는 <房中曲>(李商隱)—房中思(李賀), <屏風>—<屏風曲>, <河陽詩>—<河陽歌>, <莫愁>—<莫愁曲>, <滯雨>—<崇義里滯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은이 두보와 이하를 본떠 지은 제목이 거의 단제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써 이상은이 이들 시인의 제목을 따라할 때 내용뿐 아니라 길이도 고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시제의 유형별 논의에 앞서 2장의 1절에서 <<전당시>>와 당대 주요 시인의 시제 길이를 비교한 바 있다. 이상은은 '단제형'에 속하면서 중제와 장제의 비율도 두보와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이하 역시 장제를 거의 짓지 않은 '단제형' 시인이다. 즉 두보, 이하, 이상은 순으로 '단제형' 시인의 계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제형' 시인의 계보를 시의 내용과 더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상은은 시의 내용과 체식 등 많은 부분에서 두보의 시를 본받았다.²⁹⁾ 두보의 것을 따라한 이상은 시의 제목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고와 같이 두보 시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즉 이상은의 '두보 따라하기'가 일종의 앵커링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³⁰⁾ 이상은의 <江村題壁(강마을 벽에 쓰다)> 시를 예로 든다.

沙岸竹森森,
維艖聽越禽.
數家同老壽,
一徑自陰深.
喜客嘗留榻,
應官說采金.
傾壺眞得地,
愛日靜霜砧.

모래 언덕에 대나무 뻑뻑한데
배를 대고는 월 지방 새소리를 듣네.
여러 집들은 다 함께 오래 천수를 누리고
작은 길 하나 절로 깊고 그윽하네.
길손을 좋아하여 남은 곁을 맛보게 하고
관청의 일에 응하여 금을 캔 일 이야기하네.
술병을 기울이며 진정 좋은 곳을 얻었으니
겨울의 햇볕에 차가운 다듬잇돌 고요하네.

이 시는 시인이 江陵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주로 초겨울의 경치를

29) 王輝斌, 앞의 책, 80쪽.

30) Stephen Owen, *The Late Tang: Chinese poetry of the mid-ninth century(827-8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445쪽.

묘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기탁된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마을의 모습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묘사에서 어딘지 모르게 그윽하고 평온한 정취가 느껴진다. 이러한 인상은 두보가 강마을의 평온한 정취를 묘사한 <江村(강마을)>³¹⁾을 떠올리면서 더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보는 이 시에서 여름 날 강마을의 한적한 정취를 묘사함과 동시에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보여줬다. 이상은은 두보의 이 시와 유사한 제목을 붙여 두 시에서 묘사한 강마을의 이미지가 중첩되도록 유도하였다. 이상은이 시를 남긴 강마을은 마치 두보가 살던 이 강마을과 동일한 곳인 것만 같다. 그리고 두보의 강마을이 여름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면, 이상은의 강마을은 그곳의 겨울 모습을 담은 속편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요컨대 이 시는 두보의 시를 연상시키며 시에 담긴 의미가 더 깊어졌다고 평가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제목 '따라하기' 수법에 크게 의지한다고 하겠다.

<杜工部蜀中離席(杜甫를 본떠 - 蜀에서의 송별연)>시 또한 제목에 두보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그 의미를 확장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人生何處不離群，	인생에 어느 곳에선들 무리를 떠나는 일 없으랴만
世路干戈惜暫分。	세상이 전쟁통이라 잠깐의 헤어짐도 안타깝다.
雪嶺未歸天外使，	설령은 하늘 밖으로 간 사신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松州猶駐殿前軍。	송주는 여전히 전전군이 주둔하고 있다.
座中醉客延醒客，	술자리 취한 길손은 안 취한 길손을 불러들이고
江上晴雲雜雨雲。	강 위의 맑은 구름이 비구름과 섞인다.
美酒成都堪送老，	맛난 술 있는 성도는 늘그막을 보낼 만한데
當壚仍是卓文君。	목로에는 거기다 탁문군까지 있다.

이 시의 제목은 두보를 본떠 지은 '蜀에서의 송별연'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두보의 시 가운데 '蜀中離席'이란 제목을 가진 것이 없으니, 여기에서 본떴다고 하는 것은 두보 시의 풍격을 가리키는 것이다.³²⁾ 이런 독특한 제목으

31) 전문은 다음과 같다. 淸江一曲抱村流，長夏江村事事幽。自去自來梁上燕，相親相近水中鷗。
老妻畫紙爲棋局，稚子敲針作釣鉤。多病所須唯藥物，微軀此外更何求？

32) 劉學鐸·余恕誠, 앞의 책, 1278-1279쪽.

로 인해 독자는 두보에 앵커링 할 수밖에 없다. 두보의 칠언율시 가운데 <送路六侍御入朝(입조하는 노시어를 보내다)>는 어릴 적 벗인 노시어와 이별하면서 지은 것으로, 전반부에서 석별의 정을 드러내고 후반부에서는 봄의 경치에 불만을 터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³³⁾ 이 시 또한 마찬가지로 전반부에서 석별의 정을 다 드러내어 후반부는 삭제해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⁴⁾ 제목에서 두보 '따라하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짜임새가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목으로 인해 두보에 앵커링 된 독자라면 이상은이 의도적으로 두보 시에서 느껴지는 '여백의 미'를 표현해보려고 한 시로 이해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하의 시를 따라한 제목은 특히 '朦朧詩'라 평가 받는 후기 시에서 많이 보인다. 아마도 이하 시의 신비하고도 난해한 풍격을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시의 제목으로부터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³⁵⁾ 이러한 예로 <房中曲(규방의 노래)>이라는 시를 살펴보자.

薔薇泣幽素,	장미는 조용히 울고
翠帶花錢小.	푸른 띠에는 꽃들이 동전처럼 작구나.
嬌郎癡若雲,	귀여운 아이는 구름처럼 우두커니
抱日西簾曉.	해를 안고 서쪽 주름 가에서 아침을 맞는다.
枕是龍宮石,	베개는 용궁의 신비한 돌인 듯
割得秋波色.	가을 물결 같은 색을 나눠 주고 있거늘.
玉簫失柔膚,	옥 자리는 부드러운 살갓을 잃은 채
但見蒙羅碧.	그저 푸른 비단 이불에 덮여 있네.
憶得前年春,	기억하건대 지난 해 봄에는
未語含悲辛.	말도 못하고 쓰라린 슬픔만 안고 있었네.
歸來已不見,	돌아와 보니 이미 당신은 보이지 않고

33) 전문은 다음과 같다. 童稚情親四十年，中間消息兩茫然。更爲後會知何地，忽漫相逢是別筵。不分桃花紅勝錦，生憎柳絮白於綿。劍南春色還無賴，觸性愁人到酒邊。

34) 劉學鐸·余恕誠, 앞의 책, 1281쪽: “吳喬曰: (전략) 只須前半首, 詩意已完, 後四句以興足之。去後四句, 於義不缺, 然不可以其無意而竟去之者, 如畫之有空紙, 不可因其無樹石人物而竟去之也。”

35) Stephen Owen, 앞의 책, 177쪽.

錦瑟長于人.	비단 슬만 사람보다 오래 사는구료.
今日澗底松,	오늘은 계곡 아래 소나무였다가
明日山頭蘂.	내일은 산꼭대기의 황벽나무 되겠네.
愁到天地翻,	근심스러운 것은 천지가 뒤집히는 때 되어
相看相識.	서로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까 함이로세.

이 시는 대중 5년(751) 늦봄에 세상을 떠난 시인의 아내 왕씨를 추모한 悼亡詩이다. 대조, 은유, 대유, 가정 등 여러 가지 수사법을 동원하여 아내의 부재를 나타내고, 또 남겨진 사람들의 슬픈 마음을 담았다. 古詩의 형식에 화려하지만 음울한 시어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하의 비슷한 제목의 시 <房中思(규방의 그리움)>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제1,2구에 보이는 ‘울다(泣)’, ‘고요하다(幽)’, ‘작다(小)’ 등의 시어는 이하의 시와 동일하고, ‘가을(秋)’과 ‘아침(曉)’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하의 영향을 받아 이상은 시는 예스럽고 난해한 맛이 더해졌는데, 이는 이 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하 시 제목 따라하기부터 그 단초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2.2.4 낮설게하기

이상은 시의 제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시인들이 잘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띈다. 다른 시인에게서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글자나 의미의 조합을 사용했거나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이들을 ‘낮설게하기’³⁶⁾ 유형으로 분류해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상은의 시 가운데 <訪秋>와 <謁山>이라는 제목의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訪’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고, ‘謁’은 사당이나 사찰과 같은 건축물을 목

36) 김성곤 외, 《문학에 이르는 길》, 열음사, 1991, 60쪽: “예술의 목적은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있는 대로가 아니라 지각되는 대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기법은 사물을 낮설게 하고 형식을 어렵게 하며, 지각을 힘들게 하고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한다. 왜냐하면 지각의 과정은 그 자체가 미학적 목적이므로, 따라서 되도록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한 대상의 예술성을 경험하는 방법이며, 그 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으로 취한다. 예를 들면 杜牧의 <訪許顏(허안을 방문하다)>나 두보의 <謁先主廟(선주 유비의 사당을 참배하다)>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상은의 시에서는 사람 대신 사물을 ‘訪’의 목적어로 쓰고, 건축물 대신 ‘산’을 ‘謁’의 목적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다른 시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낮설게하기’ 수법의 사례로 여겨진다. 이 중에서 <謁山> 시를 살펴보자.

從來繫日乏長繩,	예전부터 해를 잡아매려 해도 긴 줄이 없었고
水去雲迴恨不勝。	물은 흐르고 구름 맴도니 한을 이겨낼 수 없다.
欲就麻姑買滄海,	麻姑에게로 가 푸른 바다를 사고 싶어도
一杯春露冷如冰。	한 잔 봄 이슬은 얼음처럼 차갑다.

이 시는 제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謁’의 의미를 ‘산에 오르다(登)’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산에 오르며 관찰한 석양, 흐르는 물, 구름과 같은 풍경을 묘사하며 흐르는 세월을 탄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일상적인 제목으로 인해 일반적인 ‘登高類’ 시와 유사한 주제의 일상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둘째는 ‘謁’의 의미를 ‘의인화된 산을 만나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 물, 구름은 일반적인 풍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상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麻姑라는 선녀를 언급한 것에 착안해 이상은이 과거에 낙방한 후 도교를 공부했던 玉陽山을 만난 것으로 간주한다면³⁷⁾, 그에게 이 산은 역경에 처했을 때의 의지처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푸른 바다’를 기대하고 산을 찾아갔던 그는 ‘차가운 한 잔의 이슬’을 마주하는 냉담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이 경우에도 ‘謁山’이라는 제목은 기발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낮설게하기’의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³⁸⁾

37) 鄭在瀛, 《李商隱詩集今注》, 武漢大學出版社, 2001, 303쪽.

38) 이와 유사한 예로 <隨師東>이라는 제목의 시가 더 있다. 이 시도 제목의 ‘隨’를 ‘따르다’로 볼 것인가, ‘階나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본문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제목 자체의 의미론적 구조도 특이하다. ‘隨師東’의 ‘隨’를 ‘따르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제목

<涼思>라는 제목도 다른 시인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³⁹⁾ ‘涼’은 ‘서늘하다’란 뜻을 나타내기에 흔히 ‘밤(夜)’이나 ‘비(雨)’와 같은 어휘와 결합한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에서처럼 ‘상념(思)’이라는 말과 결합시킨 까닭은 얼마간 ‘낮설게하기’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客去波平檻,	손님들 떠난 뒤에 물이 난간까지 차오르고
蟬休露滿枝.	매미 소리 그치니 이슬이 나뭇가지에 가득하다.
永懷當此節,	오래도록 상념에 잠기는 이 계절
倚立自移時.	난간에 기대어 서 있으니 저절로 시간이 흐른다.
北斗兼春遠,	북두성은 봄과 더불어 멀기만 한데
南陵寓使遲.	남릉에 사신으로 머무는 시간 더디다.
天涯占夢數,	하늘 끝을 두고 자주 꿈 풀이를 하다가
疑誤有新知.	새로운 친구가 생겼나 오해하겠나.

이 시는 개성 3년(838) 涇原節度使 막부에 있을 때 왕무원의 명을 받아 南陵으로 사신 갔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릉에 가서 처리할 업무 때문에 느껴지는 조바심을 묘사했다. 이 시에 대해 청나라 姚培謙은 “떠들썩할 때는 그래도 시름을 떨칠 수 있지만, 조용한 때에 가장 상념으로 곤란해진다.”⁴⁰⁾라 평했는데, 이 시의 모티브를 잘 지적했다고 여겨진다. 요배겸의 말처럼 이 시의 초점은 한창 북적이다가 맞이한 고요함과 그 고요한 분위기에서 비로소 밀려오는 상념에 맞춰져 있다. ‘손님이 떠나감(客去)’, ‘물이 차오름(波平檻)’, ‘매미 소리가 그침(蟬休)’ 등의 표현을 통해 상념에 빠져드는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상념의 주제는 당장 처한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작은 오해들에 대한 기우이다. 제목의 ‘涼’과 ‘思’라는 두 글자는 이 시의 ‘미시적’이면서 ‘일상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압축하고 있다. 만약 이 시의 제목을 李白의 시처럼 <靜夜思

의 풀이는 ‘군대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되고, ‘수나라’라는 뜻으로 본다면 ‘수나라 군대의 동쪽 정벌’이 되는데, 양자 모두 일상적인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39) 이상은 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만당 吳融에게 같은 제목의 시가 한 수 있을 뿐이다.

40) 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2188쪽: “鬧時猶可消遣, 靜時最難爲懷.”

(조용한 밤의 생각)>라 했다면, 독자는 이 시를 보다 ‘거시적’이고 ‘원형적’인 모티브로 이해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실제 기운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 ‘涼’이라는 공감각적인 시어가 ‘思’에 결부되었다. 이런 낯설게하기 유형의 제목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 시는 세밀한 이해의 발판이 마련된다. 이상은의 독창성이 제목 선정에 탁월하게 발휘된 결과라 하겠다.

낯설게하기 유형의 시제 가운데에는 시제 자체를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낯선 글자와 낯선 용례 때문이다. <藥轉>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자.

鬱金堂北畫樓東,
換骨神方上藥通。
露氣暗連青桂苑,
風聲偏徼紫蘭叢。
長籌未已輸孫皓,
香棗何勞問石崇。
憶思懷人兼得句,
翠衾歸臥繡簾中。

울금향 나는 집의 북쪽 채색한 누각의 동쪽
뼈를 바꾸는 신비한 처방은 좋은 약과 통하네.
이슬 기운이 어둠 속에서 푸른 계수나무 동산에 이어지고
바람 소리는 심하게 자주색 난초 무리에서 웅웅거리네.
긴 산가지가 반드시 손호만 못하지도 않고
향기로운 대추를 어찌 수고롭게 석승에게 물을까?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 떠올리다 시 구절도 얻어
비취색 이불에 수놓은 발 내리고 돌아와 눕네.

청나라 朱彝尊은 이 시에 대해 제목과 시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⁴¹⁾ 일반 독자들 역시 난해한 제목으로 인해 이해의 실마리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본문을 접하게 된다. 확실히 ‘藥轉’이라는 제목은 ‘藥草’나 ‘藥圃’와 같은 일반적인 제목과 달리 ‘낯설게하기’의 인상이 강하게 느껴진다. 잠시 제목을 제쳐두고 시의 내용을 보자. 사건의 정체와 경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매우 화려하고 호화롭다는 느낌과 비밀스레 진행되는 일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이 와닿는다.⁴²⁾ 본문에서 ‘울금향’, ‘채색한 누각’, ‘수놓은 발’과 같은 부귀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시어와 ‘靑’, ‘紫’, ‘翠’처럼 차갑지만

41) 劉學鐸·余恕誠, 위의 책, 1871쪽 : “朱彝尊曰題與詩俱不可解.”

42) Barnaby Conrad, “What’s in a name? Titles”, *The Writer*: Feb 1996, 23쪽: “To be good, it’s not always necessary for a title to be understood.”

환상적인 심상의 색채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둠 속에서’, ‘수고롭게’ 등의 부사어도 등장하여 사뭇 호흡이 가쁘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제목의 ‘轉’은 ‘약을 달이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무슨 약을 왜 달이는 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본래 내용이 난해하고 상징적일 때 제목이 해결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철저히 ‘낮설게하기’에 치중한 제목은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상은 시의 일부가 ‘난해시’로 분류된 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낮설게하기’ 수법이 동원된 제목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낮설게하기’ 유형의 제목이 문제점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난해한 제목은 독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타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제’와 같은 ‘감추기’ 유형의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낮선 제목은 이상은의 시에 신비감과 환상성을 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낮선 제목을 대하는 것 자체가 독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신비한 체험일 수 있는 까닭이다. 또 낮선 제목을 붙인 시의 대부분이 유희주의적인 경향을 띄고 있어 이상은 시 특유의 풍격과 심미적 특징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3. 결론

본고는 중국 고전시의 번역이나 연구에서 제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더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논의의 진행을 위해 제목에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루 갖춘 李商隱의 시를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는 특히 이상은의 시 제목이 그의 전체 시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상은 시의 제목을 길이, 메타 텍스트성, 모방 등 여러 각도로 관찰한 결과, 그가 시의 내용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제목을 다듬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의 제목은 작품에 부여된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종의 메타 텍스트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 시에 제목을 붙이는 기풍은 魏晉 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唐代에 이르러서 더 정교해졌다. 시인들은 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을 구상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시의 제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길이에 따라 短題, 中題, 長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인이 시의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메타 텍스트의 '절대적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全唐詩》와 당대 주요 시인의 시를 살펴본 결과 이상은은 杜甫, 李賀와 함께 단제를 가장 많이 지은 '단제형' 시인으로 분류되었다.

본문에서의 여러 논의를 통해 이상은이 시의 제목을 단순한 분류 기호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감추기'와 '드러내기'라고 분류한 유형의 제목으로부터 그가 메타 텍스트의 양을 조절하여 본문의 내용과 적절하게 호응하는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제목에서 많은 것을 감추게 되면 독자는 과거의 경험을 이입하거나 시를 읽은 뒤 느껴지는 감정 위주로 시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시의 본문은 오히려 강렬한 감정을 촉발시키거나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와 반대로 '드러내기' 유형에서는 제목을 통해 작시 의도를 강조하였다. 자칫 평범하게 이해될 수 있는 시의 본문에 속내를 드러난 제목을 붙임으로써 시에 깊은 여운을 부여했으며, 시의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상해내는 '點題'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가 난해해졌다는 혹평을 받기는 했지만, 시의 제목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제시되는 매 구절을 음미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그 나름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따라하기'와 '낯설게하기' 유형의 제목에서는 이상은만의 개성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따라하기'의 경우 이상은이 두보와 이하의 시와 비슷한 제목을 많이 지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상은의 시에서 두보와 이하의 풍격과 체식을 배운 흔적이 자주 보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두보와 이하를 본뜬 대상은 시의 제목에까지 이어졌다. 이 세 시인이 당대의 시인 가운데 단제를 가장 많이 지은 이른바 '단제형' 시인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들은 시제의 길이뿐 아니라 사용 글자와 내용에서도 유사점이 많았다. 이 또한 시의 내용과 호응하여 이상은의 시를 읽고 자연스레 두보 또는 이하 시의 풍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의 시 제목에서만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모아 '낮설게하기'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다른 시인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이상은만의 개성을 살필 수 있었다. 이상은은 때로는 난해하고 때로는 일찍이 접해보지 못한 신선한 제목을 구사하며 자신의 시에 환상성과 몽롱한 풍격을 배가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상은은 시의 제목이 담아낼 수 있는 영역과 효과에 대해 고민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뿐 아니라 대다수의 당대 시인들이 시의 제목을 구상하면서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 틀림없다. 시의 제목에도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으며, 제목에 보이는 특징이 한 시인의 풍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의 내용만 아니라 제목에도 더 큰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시의 序文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하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 參考文獻 >

- 龐 瑄, 《叢碧山房詩》, 山東: 齊魯書社, 2001.
 嚴 羽, 《滄浪詩話》, 臺北: 藝文印書館, 1996.
 陳 僅, 《竹林問答》, 北京: 北京出版社, 1998.
 김성곤 외, 《문학에 이르는 길》, 서울: 열음사, 1991.
 葛兆光, 《晚唐風韻》, 北京: 中華書局, 2004.
 劉學鐸·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4.
 鄭在瀛, 《李商隱詩集今注》, 武漢大學出版社, 2001.
 양태임, 《이상은 무제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劉宏民, 《唐詩題序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姜聲尉, <詩題論>, 《中國文學》 제48집, 2006.
- 구본현, <제목을 통한 한시 해석의 중요성과 그 이유>, 《한국문학논총》 제48집, 2008.
- 김준연, <沈淪과 孤獨: 李商隱 五言絶句論>, 《中語中文學》 제33집, 2003.
- _____, <이상은 계주막부 시기 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58집, 2013.
- 박민정, <西崑派와 李商隱의 無題詩에 관한 小考>, 《中國語文論叢》 제42집, 2009.
- 사사키 겐이치, 최은희 역, <예술 작품 표제의 기호학: 두 텍스트의 상호 관계>, 《기호학 연구》 제3집, 1997.
- 신은경, <漢詩의 長形標題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4집, 2010.
- 吳承學, <論古詩制題制序史>, 《文學遺產》 第5期, 1996.
- 王輝斌, <別具匠心: 唐詩的制題藝術>, 《山東師大學報》 第5期, 1994.
- 劉學鐸, <李商隱의 七言律詩>, 《安徽師範大學學報》 第30卷 第1期, 2011.
- Anne Ferry, *The Title to the Poe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Barnaby Conrad, What's in a name? Titles, *The Writer*, Feb, 1996.
- John Mulvihill, For public consumption: The origin of titling the short poem,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Apr., 1998
- Stephen Owen, *The Late Tang: Chinese poetry of the mid-ninth century(827-8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中文提要 >

研究或翻譯古典詩歌時一般對詩的題目不付心血。本論文的啓發點在於忽視詩題的研究風土提出疑問, 要更細致地考慮一下詩題固有的“角色”與效能。先以晚唐詩人李商隱的詩爲主材, 仔細分析他詩題的特征以及其審美效果。因爲李商隱僅達600首的詩當中迂腐而襲取老形式的題目很少。這可說明李商隱是一位比較重視詩題的功能而賦詩的詩人。本論文把李商隱的詩題分爲四大類: 隱藏, 露出, 模仿, 陌生化。

首先, 隱藏指李商隱盡量去掉或減少賦詩背景、關聯故事及其意圖等有關其詩的所有信息。這類型可包括由於長度有限本身不能包含更多信息的“短題”, 也可包括可謂題目“無有”的“無題”。通過此隱藏類型的詩可以把詩意擴大爲言外、授予更豐富更多角的解釋。但是“無題”

因諸多讀者的鑒賞與評論的積累及傳達便成爲有關信息最多的一項，有的“無題”不再是屬於“隱藏”而是代表“露出”，帶有兩面性。其次，露出正好與隱藏相反，指詩人把有關信息盡量反映在詩題的詩在內。包括在這類型的詩大部分與古典文學“點題”或“名副其實”的觀念有密切的關係。由於這樣的傳統意識詩人有時候以詩題夸耀自己“點題”或“名副其實”的能力，背評價爲“癩祭魚”的苛評。可是另一方面屬於這類型的詩擁有詩人的氣息與內心，讀者較容易能把握詩的中心思想和含蓄。翻過來說，詩人可以通過題目來傳達自己的思想。再次，讀者不難發現李商隱效法前代詩人的風格，詩的題目也不例外。其中李商隱模仿杜甫和李賀詩題的詩最值得關注。這三位詩人不只都屬於所謂“短題型”詩人而李商隱模仿的詩題也大部分屬於“短題”。李商隱以模仿杜甫和李賀的詩題使詩的內容獲得聯想作用，給予更深的寓意。最後，選拔沒有其他用處而李商隱唯有的題目爲陌生化類型的詩。陌生的字、用列與本身難解的題目等在此內。詩人故意作爲陌生的詩題結果使李商隱的詩更加突出“幻想”，“朦朧”起來了。

總而言之，由於李商隱領悟而關注詩題的作用以及其效果把題目與內容很成功地搭配出來的是很有代表性的結果。以李商隱爲一列，我們可以看出古代詩人賦詩的時候不但關注其內容而對題目也付出不少的努力。通過詩的題目又可了解詩人的思想又可看出一定的審美效果，還可以涉及到整個風格的形成與發展。

關鍵詞：李商隱、詩題、制題、長題、短題、無題、審美效果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12. 26.	2014. 2. 3.	2014. 2. 21.	2014. 2. 24.	2014. 2. 28.